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Weekly 2023년 제86호
2023.12.21.(목)

I.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국 정책·통상 이슈

【미국】美 재무부,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 잠정안 발표

【인도네시아】인니, 투자 유치 위해 전기차 수입에 대한 세금 규정 완화

【한국·몽골】韓·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희토류 등 공급망 안정 기대

주요 산업별 이슈

【화학】정부, 차량용 요소 6.8개월분 확보...내주 공공비축 물량 방출

【전기차】佛, 보조금 대상 전기차 리스트 발표...韓 브랜드 일부 포함

【에너지】韓 SK E&S, 호주 해상 가스사업전 사업 재개

주간 이슈 포커스

【韓·네덜란드 통상】韓·네덜란드, 정상회담서 공동성명 발표...반도체 공급망 협력 확대 기대

원자재 뉴스 PLUS

【12.2주 원자재 동향】공급 과잉에 따른 리튬 가격 하락세 지속...국내 양극재 업황 부정적

II. 공급망 더 알아보기

산업통상자원부, 특정국 의존도 '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춘다, 「산업 공급망3050 전략」

III. 공급망 소식통

연말 구독자 후기 이벤트 당첨자 발표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주요국 정책·통상 이슈



미국

美 재무부,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 잠정안 발표

- 📌 12.14일(현지시간) 美 재무부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해 미국 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판매 시 세액공제(AMPC)*를 부여하는 '45X 조항'의 잠정안을 발표
 - *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AMPC): 美 정부가 발표한 IRA의 세부조항으로 美 현지에서 자동차·배터리·태양광 관련 친환경 제품 생산 시 해당 기업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지급하는 내용
 - » 재무부는 이번 제안서를 통해 주요 품목과 관련된 구성 요소들의 정의와 공제 기준을 더욱 명확히 제시했으며, 관보 게재일(12.15일)부터 60일간 공식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후 '24.2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
 - 📌 대상 품목으로는 '22.12.31일 이후 생산 완료 및 판매된 배터리·태양광·풍력발전 부품 및 핵심 광물이 포함되며 품목별*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기준 제시 및 동일 요소에 대한 중복 청구 방지
 - * (배터리) 셀(35%/kWh), 모듈(10\$/kWh) / (태양광) 모듈(7¢/W), 셀(4¢/W), 웨이퍼(12\$/m²), 폴리실리콘(3\$/kg) / (풍력) 블레이드(2¢/W), 나셀(5¢/W), 타워(3¢/W) / (핵심 광물) 생산비용의 10%
 - » 세액공제 혜택은 '23~'32년까지 적용되며, 핵심 광물을 제외한 배터리·태양광·풍력발전 부품의 경우 '30년부터 세액공제 규모 단계별('30년 75% → '31년 50% → '32년 25%) 축소 예정
 - » 배터리 부문 세액공제 혜택 대상이 배터리 모듈·셀뿐만 아니라, 분리막· 전해액이 추가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수혜 전망

출처: U.S Daily Briefing 제135호('23.12.15) 등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인도네시아

인니, 자국 투자 유치 위해 전기차 수입에 대한 세금 규정 완화

- 📌 12.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5년까지 전기 자동차 공장 건설 계획이 있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세금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규정을 발표했다고 보도
 - » 수출국에서 배송되는 조립차의 수입에 한해 인센티브를 적용하던 이전 규정과는 달리, 새 규정은 자국에 반입되는 조립차에 대한 관세와 사치품 판매세를 철폐하고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세금에 인센티브를 부여
 - » 기업들이 전기차 생산의 최소 40%를 인니서 생산하도록 요구하는 기한을 '23년에서 '26년으로 연장했으며, 현지 제품 사용 기준치를 60%로 상향 조정하는 법령의 시행을 '24년에서 '27년으로 연기
- 📌 인도네시아 정부는 '30년까지 '23년 상반기 인도네시아 판매량의 100배가 넘는 수치인 약 6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목표 수립

출처: 로이터통신('23.12.13)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한국·몽골

韓·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희토류 등 공급망 안정 기대

-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 핵심자원 부국인 몽골과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해 12.18~20일 3일간 서울에서 1차 공식 협상을 진행한다고 발표

*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관세 철폐 등 시장 개방 요소에 더해 상호 호혜적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협력 요소가 강화된 통상협정으로 낮은 수준의 FTA로 인식됨

- » 몽골은 물리브덴* 생산량 세계 9위 국가이며, 디스플레이 패널의 전극 재료인 주석 및 니켈 등 희소 금속 및 희토류도 다량 매장되어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한국의 공급망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물리브덴: 의약품과 윤활제, 반도체 등에 활용되는 핵심 원료

- 양측은 상품·서비스·투자·경제·개발 협력·디지털 등 16개 분야의 협상을 통해 경제동반자협정 논의를 진전시킬 계획
- » 산업부는 몽골과 경제동반자협정 체결 시, 교역·투자 확대 뿐만 아니라 핵심광물 공급망, 디지털 등 신통상 이슈에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출처: 산업부 보도자료('23.12.18), 연합뉴스('23.12.18)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주요 산업별 이슈

화학

정부, 차량용 요소 6.8개월분 확보...내주 공공비축 물량 방출

- 12.15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총괄반 회의에서 차량용 요소·요소수 재고 총 6.8개월분을 확보했으며 내주부터 공공비축 물량을 방출할 계획이라고 발표
- » 정부는 조달청의 공공비축 물량 확대와 중소기업의 공동구매 등을 통해 계약물량을 포함한 차량용 요소·요소수의 국내 재고분을 6.8개월분으로 확대*
- * 차량용 요소·요소수 비축분 확대 추이: (11.30일) 3개월 → (12.6일) 3.7개월 → (12.8일) 4.3개월 → (12.13일) 5.1개월 → (12.14일) 6.8개월
- » 베트남산 요소는 12.16일 5,460톤이 울산항에 입고되었으며, 추가 제3국 계약 물량은 '24.1월에 12,150톤, '24.2월에 14,000톤이 순차적으로 입고될 예정
- 정부는 추가 물량 도입 또한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조달청은 비축 중인 물량 1,930톤을 생산업체의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내주부터 방출할 예정
- » 정부 관계자는 재고가 없는 국내 주유소의 경우 요소수 판매 비중이 높지 않은 곳이므로 실제 요소수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힘
- » 또한 정부는 주유소의 요소수 판매 정보 제공을 개선하는 등 유통 현장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

출처: 산업부 보도자료('23.12.15), 연합뉴스('23.12.15)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전기차

佛, 보조금 대상 전기차 리스트 발표...韓 브랜드 일부 포함

- 📌 12.14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가 공개한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차 리스트에 따르면, 중국산 등 EU 역외에서 생산된 전기차 대부분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 유럽산 자동차에 유리한 계산법에 따라 유럽 주요 브랜드 및 美·日 전기차종은 대거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 반면, 사중에서 저렴하게 팔리는 다치아 스프링*과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 산하 MG 차종 등 중국산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 르노그룹 산하 자동차 제조사인 다치아(Dacia)의 저가형 전기차 모델
 - » 현재 프랑스 정부는 전기차 구매 시 저소득층에 최대 7천 유로(약 990만 원), 기타 5천 유로(약 700만 원)를 지원하고 있음
- 📌 韓 완성차 브랜드 중에서 현대자동차의 '코나'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며, 기아의 '니로'와 '쏘울'은 제외
 - » 전기차 생산 및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6개 부문으로 나눠 합산·산정한 점수가 80점 만점에 최소 60점 이상인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현대 코나는 체코에서 생산되어 운송 부문 감점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
 - »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동 조치가 보호주의적 조치가 아닌 환경보호 목적의 조치라며 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

출처: 연합뉴스('23.12.15), KBA Europe('23.12.16) 등 언론보도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에너지

SK E&S, 호주 해상가스전 사업 재개

- 📌 12.15일(현지시간) 호주 해양석유안전환경청이 SK E&S의 바로사 가스전* 시추 환경 인허가를 승인함에 따라 가스전에서 시추한 천연가스를 한국으로 들여올 수 있게 됐다고 보도
 - * 바로사(Barossa) 가스전: 호주 북부에 위치한 가스전으로 천연가스 매장량이 7천만 톤 이상이며, 한국의 SK E&S가 37.5%의 지분을 보유 중
 - » '22.10월 가스전 인근 티위 제도(Tiwi Island) 원주민들이 인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추 작업에 차질이 발생했으나, 정부 간 협력에 힘입어 가스전 개발 사업이 재개됨
 - » SK E&S는 '12년부터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여 가스전 개발 사업에 참여했으며, 현재 공정률이 60%를 넘어 '25년 상업생산을 시작할 계획
- 📌 한국은 지난해 中·日에 이어 천연가스 수입국 3위를 기록했으며, 이 중 해외 자원개발을 통해 국내로 직도입하는 물량은 5%에 그쳐 에너지 수급과 가격이 국제 시황에 취약한 구조
 - » 업계는 SK E&S가 동 사업을 통해 20년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천연가스를 직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출처: 중앙일보('23.12.18)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주간 이슈 포커스

韓-네덜란드, 통상

韓-네덜란드, 정상회담서 공동성명 발표...반도체 공급망 협력 확대 기대

- 12.13일(현지시간)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가 12.12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반도체 협력 지속 및 확대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고 발표
- ▶ 정부는 이번 성명을 통해 반도체 산업 전환기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반도체 기술 분야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첨단 장비 공급 및 조달에 주력한다는 방침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 개요(12.12일)

참여 기업·기관	▶ (대한민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 (네덜란드) ASML(노광장비 제조사), ASM(증착장비 제조사) ▶ (유럽) Zeiss(독일, 광학시스템 제조사), IMEC(벨기에, 반도체 연구기관)
MoU 체결	▶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신설 협력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 네덜란드 외교부) ▶ 최첨단 반도체 생산장비를 활용하여 양국 대학원생에게 현장 학습 기회 제공* * '24.2월 네덜란드에서 첫 번째 교육 개시 예정 ▶ 차세대 반도체 R&D 센터 한국 설립 (삼성전자 - ASML) ▶ 1조원 공동 투자하여 차세대 EUV 기반 초미세 공정 공동 개발 R&D 센터를 한국에 설립 ▶ ASML이 해외에 반도체 제조 공정 개발을 위한 R&D센터를 반도체 제조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하는 첫 사례 ▶ EUV용 수소가스 재활용 기술 공동개발 (SK하이닉스 - ASML) ▶ 수소 자원 친환경 공정 공동 개발 ▶ EUV 장비 내부 수소 재활용 시 전력 사용량 연간 165억 원 비용 감축 효과 기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 공동성명 개요(12.13일)

배경	▶ '22.11월 마크 루터 총리 방한 당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 경제안보·해양안보를 포함한 양국 간 협력 강화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파트너십 증진 의지 천명
공급망 관련 주요 내용	① 한-네덜란드 반도체 대화 및 반도체 인력 양성 프로그램 신설 통한 반도체 동맹 구축 ② 핵심품목 교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③ 공급망 회복력 확보를 위한 정부 간 지식·정보 교류 증진 ④ 탄소 중립 및 에너지 안보 보장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 협력 증진 ⑤ ICT 분야 협력 MoU 체결 환영 및 디지털 영역 협력 증대 ⑥ 원전 건설·운영, 인력 양성, 원자로 혁신 등 원전 협력 확대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출처: 대통령실 보도자료('23.12.13), 연합뉴스('23.12.13)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원자재 뉴스 PLUS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참고]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희소금속

공급 과잉에 따른 리튬 가격 하락세 지속...국내 양극재 업황 부정적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 및 중국발 리튬 공급과잉에 따라 리튬 가격이 연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국내 양극재 업체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업계 고민 증대 [출처: 국내언론 종합]

- 전기차 시장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및 품목 공급망 다변화로 인해 향후 금속 가격 상승 요인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양극재 및 리튬 업체들의 리튬 재고는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리튬 가격은 언제든지 안정화될 수 있는 환경”으로 분석하며 리튬 가격 하락 안정화에 따른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에 대한 영향이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12월 2주)

◆ [비철금속] 美 연준 긴축정책 완화 전망으로 동 가격↑, 주요 프로젝트 생산차질로 니켈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2년	'23.11월	전년비(%)	12.1주	12.2주	전주비(%)
동	8,797	8,492	△3.5	8,308	8,337	0.3
니켈	25,605	21,971	△14.2	16,253	16,382	0.8
아연	3,478	2,662	△23.4	2,429	2,452	0.9

* 자료원: LME

(동) 美 연준의 내년 금리인하 전환 가능성 시사로 전기동 가격상승압력이 발생했으며, 메이저사의 광산생산 차질에 따른 내년 동 수급상황 악화 전망도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

(니켈) 美 연준 긴축정책 완화에 따른 투자수요 개선 및 주요 프로젝트 생산차질로 니켈시장 가격상승압력이 발생했으나, 인도네시아 정련니켈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상승압력이 부분적으로 상쇄

» 호주 광산업체 South32사의 콜롬비아 Cerro Maosto 페로니켈 프로젝트는 12.10일부터 지역주민들의 도로봉쇄 시위로 조업차질에 따른 불가항력 선언

◆ [철강] 中 주요항구 재고량 감소로 철광석 가격↑, 계절성 수요 확대로 연료탄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2년	'23.11월	전년비(%)	12.1주	12.2주	전주비(%)
연료탄	348.65	176.97	△49.2	142.93	145.67	1.9
원료탄	364.99	292.63	△19.8	333.15	326.80	△1.9
철광석	120.26	117.42	△2.4	132.96	136.48	2.6

* 자료원: 연료탄(호주 뉴캐슬 FOB 기준, ICE 기준), 원료탄(호주 FOB 기준, Premium Low Vol), 철광석(중국 주요항 CFR 기준, 62%분광)

(철광석) 中 춘절 연휴 이전 철광석 재고비축 수요확대 및 주요 항구 재고량 감소에 따른 가격상승압력 발생

(유연탄) 12.2주차 국제유가(WTI)가 배럴당 71.43달러로 전주대비 0.3% 상승하며 7주 연속 하락세 마감, 연료탄 가격은 전주대비 1.9% 상승

» 연료탄 일일가격은 톤당 153달러 → 142달러선으로 완만한 하락세 시현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12월 2주)

◆ [희소금속] 철강·이차전지 분야 수요 부진 속에 가격↓ 지속, 산화디프로슘은 CREG社 구매로 단기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코발트: U\$/lb)			주간평균 (U\$/톤) (코발트: U\$/lb)		
	'22년	'23.11월	전년비(%)	12.1주	12.2주	전주비(%)
페로망간	1,551	1,278	△17.6	1,130	1,130	-
탄산리튬	72,290	37,794	△47.7	14,190	13,619	△4.0
수산화리튬	67,180	38,107	△43.3	14,441	14,038	△2.8
코발트	31.20	17.90	△42.6	17.00	16.56	△2.6
산화 디프로슘 (히토류)	380,494	325,941	△14.3	379,100	379,900	0.2
산화 네오디뮴 (히토류)	133,607	79,647	△40.4	67,400	64,260	△4.7

* 자료원: 페로망간(중국 FOB 75%), 탄산·수산화리튬(중국 내수가격, 99.5%min, 56.5%min), 코발트(유럽 in-warehouse 99.8%min), 산화디프로슘(중국 FOB 99.5%min), 산화네오디뮴(중국 FOB 99.5~99.9%)

- 📌 **(페로망간)** 中 제강업계의 페로망간 현물에 대한 부진한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현물가 전주와 동일
- 📌 **(탄산리튬)** 이차전지·전기차 제조사의 연말 생산 재고 감축, 보유 원료 재고 활용한 생산으로 탄산리튬 현물수요 부진 지속
- ▶ 연말 전기차·이차전지 분야 수요 부진과 잉여 공급 시장 지속에 따른 가격 상방 제한 전망
 - ▶ 차년도 리튬화합물 제조업체는 수산화리튬 대비 LFP 등 수요가 높은 탄산리튬 증설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
- 📌 **(코발트)** 전방산업 수요는 정체되어 있으나, 중국發 공급 증가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下 가격 하향세 지속, 수요업체들은 가격 하향 지속 전망하며 구매 최소화 지연
- ▶ 다수 시장참여자들은 주요 수요업체의 원료 재구매 시점인 1월까지 하락세 이어질 것으로 전망
 - ▶ 유럽 시장에서 非중국산 Alloy 등급 제품 수요는 중국산 수요 대비 높음
- 📌 **(히토류)** 단기적으로 영구자석 수요 반등 기미가 없는 가운데, China Rare Earth Group(CREG)의 산화 디프로슘 구매로 해당 광종 소폭 가격 상승

◆ [에너지] 美 EIA 유가 전망 하향, 美 견고한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로 국제유가 하락세

품목	연평균 (\$/배럴)			주간평균 (\$/배럴)		
	'22년	'23.11월	전월비 등락폭	12.1주	12.2주	전주비 등락폭
두바이유	96.41	83.55	-6.20	77.03	75.01	-2.03
브렌트유	99.04	82.03	-6.67	75.88	75.34	-0.55
WTI	94.33	77.38	-8.09	71.06	70.48	-0.58

* 자료원: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등

- 📌 **(국제 유가)** ▲美 에너지정보청(EIA)의 유가 전망 하향, ▲견고한 美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등으로 인해 유가 하락, ▲美 연준의 '24년 금리 인하 가능성, ▲美 원유재고 감소, ▲홍해지역 수송 리스크 고조 등은 하락폭 제한 요인으로 작용



공급망 더 알아보기

특정국 의존도 '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춘다,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12.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유일 천연흑연 음극재 생산공장인 포스코퓨처엠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산업부는 「소부장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법」 시행(12.14)을 계기로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회의 개요

▶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 개요

- (일시/장소) 12.13(수) / 포스코퓨처엠 세종 음극재 공장
-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 (내용) 산업공급망 3050 전략 발표, 배터리 산업 공급망 확보 전략, 업계 건의사항 등
- (참석)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부장 공급망센터, 반도체협회, 배터리협회 및 기업 관계자 등

▶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발표 내용

▶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추진 배경

- 글로벌 공급망이 ▲내재화, ▲블록화, ▲자원무기화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수출통제 등 상시화되고 있는 공급망 교란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 필요

* 22년 기준 수입액 100만 달러 이상, 특정국 수입의존도 50% 이상인 소재·부품·장비 1,719개

▶ (정책 대상)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 선정

- 산업통상자원부는 특정국 수입의존도, 수입처 대체·전환 가능성, 중장기 수급 전망 등을 고려하여 반도체 희귀가스, 흑연, 희토 영구자석, 요소 등 185개의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하고 이들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2년 평균 70%에서 '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기 위한 종합 전략을 발표

* ▲반도체 17개 품목, ▲이차전지 19개 품목, ▲디스플레이·바이오·전기전자 23개 품목, ▲자동차·조선 24개 품목,

▲기계·로봇·항공 24개 품목 ▲금속(철강, 비철금속) 29개 품목, ▲섬유 16개 품목, ▲세라믹 16개 품목, ▲화학 17개 품목

- 이번 공급망 안정품목은 수입규모나 특정국 수입의존도 등 정량 요인 외에도, 공급망 차질 발생 시 전후방 밸류체인에 미치는 영향과 수입국 전환 난이도 및 국내 자체생산 애로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 정성 요인도 고려
- 산업통상자원부는 범부처 추진체계 및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번에 선정된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을 중심으로 자립화, 다변화, 자원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

- ▶ (추진 기반) 공급망 3법*을 신속 제·개정해 범부처 공급망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범정부, 관계기관,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추진체계 구축
- (법제) 공급망 기본법은 범정부적 공급망 정책대응체계를 규정하고, 각 개별법에 따라 소관부처가 품목·서비스별 전문성을 활용하여 실제 안정화 조치를 추진할 예정

공급망 기본법	소부장 및 공급망안정 특별법	자원안보 특별법
기획재정부(국회 통과)	산업통상자원부(국회 통과 후 발효)	산업통상자원부(법사위 계류중)
▶ '공급망안정화 위원회', '공급망안정화 기금' 신설 ▶ 국가 차원 공급망 관리 기본계획 수립(3년 단위) ▶ 부처별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및 범정부 위기 대응	▶ '공급망 안정품목' 선정 ▶ 기술개발, P턴 등 '공급망 안정품목' 지원사업 추진 ▶ '소부장 공급망센터' 및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 '자원안보위원회' 등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구축 ▶ '자원안보기본계획' 수립 ▶ 핵심자원 공급망 강화 위한 지원근거 마련

- (추진체계) 공급망안정화 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지원 등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계획

* 특히 산업부는 관계기관(소부장 공급망센터 및 광해공단 등), 산업계로 구성된 산업 공급망 협의회를 통해, 평시·위기시 업계와 밀착 협업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동대응할 예정

- (모니터링) 범부처 협업을 통해 공급망 안정품목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EWS)를 구축할 예정



- ▶ (자립화 전략) 공급망 안정품목에 대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R&D 성과가 국내 생산시설 구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공급망 완결형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
- 자체 생산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품목에 대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산업·국민생활 필수품이나 경제성 부족으로 국내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시설 투자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할 예정
- 특히, ▲이차전지 전해액, ▲탄소섬유, ▲실리콘 웨이퍼, ▲세포배양 배지 등 현재 계획되었거나, 진행 중인 14개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투자에 대해서는 규제, 인허가, 투자애로 등을 해결될 때까지 밀착 지원하며 추후 지원 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
- 이외에도, 공급망 안정품목의 국내 생산을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며, 첨단·공급망 핵심업종의 유턴 확대를 위해 해외사업장 축소 의무 면제 대상 확대('24년)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 (現) 첨단업종,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적용 → (改)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추가

▶ (다변화 전략) 공급망 리스크 분산을 위해 특정국에 집중된 수입처 및 생산거점을 다변화

- (수입처 다변화) 대체수입처 발굴 → 현장 검증/성능 시험 → 국내 공정 도입 테스트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공급망 안정품목에 대한 수입처 다변화 시, 수입 보험 우대적용* 예정('24년)

* 수입보험 대상에 공급망 안정품목을 포함하고, 보험 한도를 1.5배까지 확대 적용 추진

- (생산거점 다변화) 공급망 안정품목을 생산하는 해외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및 전략적 제휴(M&A)를 지원하고, 특정국에 집중된 생산시설을 제3국으로 이전할 경우 정보, 금융 등 지원(P턴) 방안 검토

* (M&A) KOTRA 등을 통해 해외 M&A 매물 정보 확인·분석 및 국내기업 매칭 지원 → 공급망 대응펀드를 통해 금융 등 지원 (P-턴) 1차년도 : F/S, 이전비용 산출 등 → 2차년도 : 금융, 법무, 물류 등 지원

▶ (자원확보 전략) 핵심광물 비축, 해외광물자원 협력, 산업부산물 재자원화를 통한 핵심광물 확보방안도 마련할 계획

- (공공비축) 20종 35개 품목의 평균 비축물량을 현재 50일분에서 '24년 60일분, '31년 100일분으로 확대하고, 늘어나는 비축물량에 대비하여 신규 비축기지도 구축할 예정

* 새만금 산단에 국각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3.12월, 2,417억 원)

- (해외광물확보) 전략협력국과 핵심광물 광산투자 지원 및 친환경 광물 가공기술을 제공하고, 현지에서 가공된 광물을 국내로 도입하는 핵심광물 공급망 ODA를 비롯하여, MSP, RISE 등 다자협력 플랫폼* 적극 참여

* 다자협력체에서 제안된 유망 프로젝트를 우리 기업에게 소개하고, 기업이 투자 시, 리스크 완화를 위해 타당성 평가 등 지원

- (재자원화) 산업부산물 등에서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상용화를 지원하고, 산업폐기물이 순환 자원으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는 순환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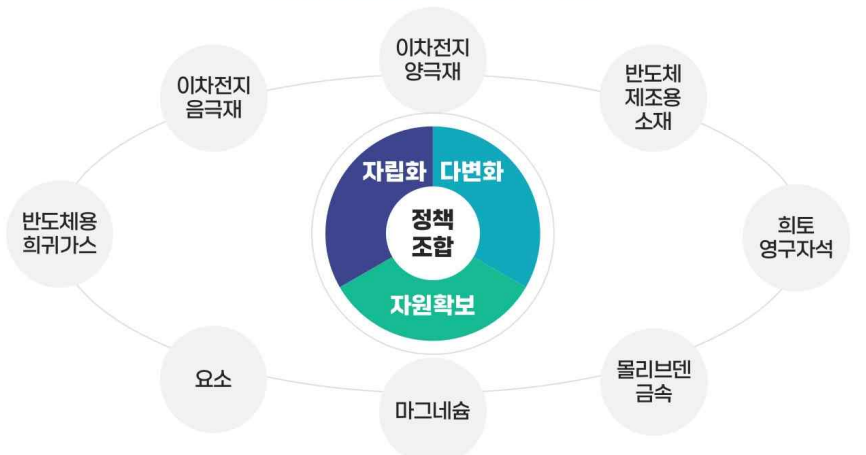
* (기술개발) 니켈과 황산코발트 스크랩 활용 생산기술, 재활용 알루미늄 청정화 및 부품화 기술, 폐 히토 영구자석 재활용 기술 등 (실증지원)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술 상용화 및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재자원화 실증센터 구축 운영 방안 마련 중

**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를 신설(환경부, '24년~)할 예정이며, 재생원료 사용량 인증시스템 및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 예정

8대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 » (내용)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이고 공급망 불확실성이 큰 품목 중심으로 자립화, 다변화, 자원확보 등 공급망 정책의 3대 축을 조합해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추진 예정

8대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공급망 소식통

소부장산업 공급망센터 공식 카카오톡 채널 오픈 기념

구독자 후기 이벤트 당첨 결과

연말 구독자 후기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많은 독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의견이 너무나도 많아 옥석을 가리기 힘들었으나, 아래 18명의 당첨자를 선정해 발표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개선에 반영하겠습니다.

우수 의견 선정 당첨자

최우수 3명 0620님 3007님 7580님

우수 5명 5450님 6302님 6148님 8529님 0929님

장려 10명 4214님 7663님 8508님 1601님 1100님
0749님 2040님 2511님 1423님 3669님

당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화번호 뒷자리 확인 부탁드립니다

우수 의견 일부를 발췌하여 내달 공유하여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지표 (23.12.19.화)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환율

	'21말	'22.말	'23.11말	12.15	12.18	12.19	전일비	22말비
₩/US\$	1,188.80	1,264.50	1,290.00	1,296.50	1,297.20	1,307.80	0.82%	3.42%
선물환(NDF, 1월물)	1,190.00	1,265.30	1,287.80	1,293.10	1,294.90	1,305.50	0.82%	3.18%
₩/CNY	186.51	181.44	180.90	181.50	181.90	183.06	0.64%	0.89%
₩/¥100	1,032.48	945.56	877.79	912.84	911.20	909.96	△0.14%	△3.76%
Y/US\$	115.14	133.73	146.96	142.03	142.28	143.72	1.01%	7.47%
US\$/EUR	1.1318	1.0617	1.0974	1.0981	1.0915	1.0926	0.10%	2.91%
CNY/US\$	6.3681	6.9630	7.1244	7.1097	7.1293	7.1458	0.23%	2.63%

* 22년 평균 환율: (₩/US\$) 1292.2원, (₩/¥100) 983.8원, '23년 평균 환율('23.1.1~현재): (₩/US\$) 1306.1 (₩/¥100) 932.2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2년 최저(해당일)	'22.12.31	'23.12.18(전일)	'23.12.19	전일비	'22년최저비	'22년말비
원유(두바이)		71.83(12.12일)	78.77	76.17	76.83	0.7 0.9%	5.0 7.0%	△1.9 △2.5%
철광석		79.50(10.31일)	117.35	133.95	133.80	△0.1 △0.1%	54.3 68.3%	16.5 14.0%
비철 금속	구리	7,000.00(7.15일)	8,387.00	8,423.00	8,439.00	16.0 0.2%	1439.0 20.6%	52.0 0.6%
	알루미늄	2,080.00(9.28일)	2,360.50	2,213.00	2,215.50	2.5 0.1%	135.5 6.5%	△145.0 △6.1%
	니켈	19,100.00(7.5일)	30,425.00	16,650.00	16,460.00	△190.0 △1.1%	△2640.0 △13.8%	△13965.0 △45.9%

반도체

	'21	'22	'23.9월	'23.10월	'23.11월	12.14	12.15	12.18	12월(~18)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 YoY)	3.99 29.9%	3.07 △23.0%	1.48 △41.3%	1.55 △35.6%	1.66 △23.1%	1.75 △13.9%	1.75 △13.1%	1.75 △13.0%	1.74 △15.1%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 YoY)	6.55 14.7%	7.25 10.7%	6.32 △3.8%	6.40 △2.6%	6.42 △1.7%	6.38 △2.4%	6.38 △2.5%	6.38 △2.5%	6.40 △2.0%

S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12.30	'23.11.24	12.1	12.8	12.15	전주비(12.8)	'22년말비
SCFI	5046.66	1107.55	993.21	1010.81	1032.21	1093.52	5.9%	△1.3%

BDI (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1.12.24	'22.12.23	'23.12.13	12.14	12.15	12.18	12.19	전일비(12.18)	'22년말비
BDI	2217	1515	2438	2411	2348	2288	2219	△3.0%	46.5%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문의

KOTRA 글로벌공급망실

gvc_monitoring@kotra.or.kr

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

gvc_research@kita.or.kr



메일 구독(수신) 신청

<https://moaform.com/q/lflGnB>



카카오톡 채널 구독 신청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

협력기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Korea Petrochemical Industry Association



한국섬유산업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Textile Industries



한국수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동조합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전략물자관리원

KOREA STRATEGIC TRADE INSTITUTE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